

윤대성의 노년희곡 연구*

조 보 라 미**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노년 삶에 대한 긍정적 비전 |
| 2. 노년에 당면하는 ‘자아정체성’의 위기 | 4. 멜로드라마 양식을 통한 노년에 대한 위로와 긍정 |
| 1) 노인문제에 대한 사실적 형상화 | 5. 윤대성 노년희곡의 의의와 한계 |
| 2) 남성 젠더에 대한 주목 | |

국문초록

본고는 윤대성 후기 희곡의 한 갈래인 노년희곡에 대해 고찰했다. 윤대성의 후기 희곡은 사회현실에서 실존적 문제로 관심이 이동한 시기로, 특히 중년기와 노년기라는 인생 주기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동행> 등의 노년희곡은, 노년에 당면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내고 이것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바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

* 이 연구는 201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아울러 이 논문은 2015년 8월 윤대성 극문학관 개관 기념 ‘윤대성 심포지움’에서의 발표가 기초가 되었다. 발표 기회를 주신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에 감사드린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요약될 수 있다.

윤대성 노년희곡에서 자아정체성의 위기는 구체적으로 역할상실과 고독, 질병, 빈곤 등 노인의 4고(苦)뿐 아니라 독거노인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요양시설 등 다양한 노인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비전으로 사랑과 기억, 추억이 제시된다. 이때 사랑은 노년에도 얼마든지 ‘낭만적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친밀감’과 ‘헌신’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노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억과 추억은 노년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윤대성의 희곡이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임을 분명히 한다.

한편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남성 젠더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과 고민을 그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노년문학 및 노년학 연구는 젠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 노인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여성노인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소외되어 있는 남성노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의 희곡은 남녀 간의 통속적인 사랑, 음악과 시, 우연성, 파토스, 도덕적 결말구조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짐으로써 멜로드라마 양식을 취한다. 이것은 멜로드라마적 세계의 구현을 통해 노년의 삶을 긍정하고 위안을 제공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노인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노년의 긍정적인 비전을 드러냄으로써 대안적인 노년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는 물론, 작가의 인생주기에 따른 희곡이라는 점에서 노년희곡 창작에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 아울러 멜로드라마 양식을 통해 대중적인 노년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노년희곡, 자아정체성, 자아통합감, 노인문제, 젠더, 멜로드라마

1. 들어가며

윤대성은 드라마센터 연극아카데미 출신으로, 1967년 등단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그는 <수사반장>, <한 지붕 세 가족> 등 TV드라마의 인기 작가이기도 했으며, 연극과 TV드라마를 넘나들며 창작활동을 해나갔다. 그러나 작가 자신도 자임하듯 그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연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회극은 하나의 테마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것을 주요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의 등단작 <출발>은 부조리극의 성격이 짙은 작품이고, <망나니>, <노비문서>, <너도 먹고 물러나라> 등은 전통극을 현대화한 작품이다. 또한 <출세기>, <신화 1900> 등은 현대문명과 마스크 등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고, <방황하는 별들> 등 이른바 별 시리즈는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창작한 <두 여자 두 남자>, <이혼의 조건>, <당신, 안녕> 등 소위 ‘가족 3부작’은 중년에 처한 부부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000년대 발표한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동행> 등 ‘죽음 3부작’은 노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¹⁾

이러한 윤대성의 회극은 크게 초·중·후기로 나눌 수 있다. 유민영은 일찍이 그의 작품세계가 실존적 문제에서 현실 비판으로, 다시 실존 문제로 돌아올 것임을 예견했는데,²⁾ 이것은 실제로 거의 일치한다. 초기를

1) 여기서 ‘가족 3부작’과 ‘죽음 3부작’은 작가 자신이 붙인 명칭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보라미, “극작가 윤대성과의 만남: 연극은 꿈이며 영원한 것”,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공연과 이론』, 2014.3, 217쪽 참조. 이 글에서 ‘죽음 3부작’의 하나로 ‘<꿈 꺾서 미안해>’를 든 것은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의 오기임을 밝힌다.

2) 유민영, “좌절과 비극의 작가”, 윤대성, 『신화 1900』(해설), 예니, 1983, 357쪽. 김동현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 서 있다(『윤대성 회극의 실존 의식과 현실 비판 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쪽).

대표하는 <출발>은 작가 자신의 실존적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중기는 전통의 현대화와 사회문제, 청소년 문제 등 각기 소재는 다르지만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후기는 “사회문제에서 개인의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 예술가의 삶과 존재의 의미” 등 실존적 문제로 관심이 옮겨진 시기이다.³⁾ 이 중에서 상기한 ‘가족 3부작’과 ‘죽음 3부작’은 중년과 노년기에 당면하는 실존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윤대성 후기 희곡의 뚜렷한 한 흐름을 차지한다.⁴⁾

한편 기존에 윤대성 희곡에 대한 연구는 전통극을 현대화한 작품⁵⁾과 연극적 기법에 대한 것⁶⁾이 대다수로, 주로 초·중기작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후기작에 대해서는 ‘가족 3부작’을 중심으로 해체주의⁷⁾ 및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⁸⁾가 있고, 노년희곡에 대한 연구⁹⁾도 있다. 이

-
- 3) 윤대성, “나의 작품을 위한 몇 가지 변명”, 『한국연극』, 1993.5, 52쪽. 윤대성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6.29 선언과 함께 반체제와 투쟁의 정치 분위기가 타협의 정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든다(같은 글, 같은 곳).
- 4) 윤대성의 후기 희곡 중 <타스마니아를 꿈꾸며>, <까페 블루문>은 중년의 위기를 다룬 희곡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 밖에 사회문제를 다룬 <제국의 광대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혁명과 사랑>, <사스 가족> 등도 존재하나 이들 중 대부분은 청탁에 의한 것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쓰고 싶어서 쓴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다(홍창수, 『연극과 통찰』, 연극과인간, 2010, 179-219쪽 참조). 그리고 작가 또한 자신의 주요작으로 ‘가족 3부작’과 ‘죽음 3부작’을 든다는 점에서 이것을 윤대성 후기 희곡의 큰 줄기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물론 <사의 찬미>, <남사당의 하늘> 등 예술 및 예술가의 삶을 다룬 작품도 후기 희곡의 한 맥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김현철, 『윤대성 희곡의 전통극 양식 수용과 현실의 형상화』, 『한국극예술연구』, 2008; 김미도, 『윤대성 희곡의 전통 수용 양상』, 『한국연극학』, 2006 등.
- 6) 김성희, “현실과 연극의 겹침구조”, 『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 문예마당, 1995; 박혜령, 『윤대성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997; 정낙현, 『윤대성 희곡에 나타난 서사극적 특성』, 『한국극예술연구』, 1992; 김진희, 『윤대성 초기희곡의 서사극적 특성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등.
- 7) 이미원, “윤대성 희곡 연구: ‘중산층 가정극’을 중심으로”, 윤대성, 『윤대성희곡전집』1(해설), 2004.
- 8) 심정순, “한국형의 포괄적 양성적 관점을 향하여”, 『윤대성 희곡전집』4(해설), 평민사, 2004; 박숙자, 『윤대성 희곡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것이 테마별 연구라면, 유민영, 김동현, 홍창수 등은 각 시기를 총괄하여 윤대성의 작가의식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작가의식을 밝히려는 이들 연구는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작품이 제한적이고 윤대성 작품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특히 후기 희곡의 경우)는 한계가 있다.¹⁰⁾ 이에 본고에서는 윤대성 연구가 전체적인 작품을 총괄하는 작가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후기 희곡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일단으로 윤대성의 노년희곡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때 ‘노년희곡’은 노인을 주요 인물로, 노인이 당면한 제반 문제와 갈등이 서사골격을 이루며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심리와 의식에 대해 천착하는 희곡이다.¹¹⁾ 그런데 노년희곡을 포함하여 노년문학에 대한 창작과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2000년대 이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매우 시의적이며 중요한 장르로 부상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화, 도시화로 인해 노년기 연령규범에 대한 합의가 명확치 못하며, 이에 따라 노인은 ‘무규범(rolelessness)’ 내지 ‘규범 혼란(role disturbance)’ 상태에 놓여 있다.¹²⁾ 이런 상황에서 노년문학은 노년기의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고 노년은 물론 후속 세대가 참조할 수 있는 ‘문화적 이정표’로서의 가치가 있으며,¹³⁾ 이에 대한 창작과 연구 역시 더

논문, 2010.

9) 전성희, 『노년 작가가 인식한 노년의 문제』, 『인문언어』, 2013.

10)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민영과 김동현은 윤대성 희곡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개괄하고 있으며, 홍창수는 이들 희곡을 관통하는 작가의식으로 ‘허무의식’을 발견해 낸 성과가 있다. 그러나 유민영의 글은 1983년에 쓰여 윤대성의 중기희곡 일부를 포괄하고 있고, 윤대성의 희곡을 1,2,3기로 나눈 김동현은 3기 작품으로 <사의 찬미>, <두 여자 두 남자> 정도를 다루고 있다. 홍창수 역시 <출발>, <노비문서>, <당신, 안녕> 등 3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11) 이것은 ‘노년문학’의 개념을 희곡에 적용한 것이다. 노년문학의 개념 및 노년문학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2008.12 참조.

12) 김수영 외,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255쪽.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년문학의 창작자를 노년 작가에 한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¹⁴⁾ 윤대성은 이근삼과 함께 여기에 속하는 몇 안 되는 희곡 작가 가운데 한 명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동행> 등 3작품으로, 이들 희곡은 노년에 당면한 자아정체성의 위기와 극복을 다루고 있다.¹⁵⁾ 그런데 기실 ‘자아정체성’은 중년을 다룬 희곡에서부터 이어져온 문제의식이다. <두 여자 두 남자>, <이혼의 조건>, <당신, 안녕> 등은 기존에 ‘이혼예찬 3부작’, ‘가족 3부작’, ‘중산층 가정극’¹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으나, ‘빈 둥지 시기(empty nest stage)’에 겪는 ‘중년의 위기’를 다룬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⁷⁾ 이렇게 본다면 한국현대연극의 당면 과

13)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19쪽 참조.

14) 노년문학 연구에 대한 역사가 짧다 보니 노년문학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노년문학의 창작자를 노인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며(대표적으로 류종렬. 여기에 대해서는 류종렬, 앞의 논문, 530-531쪽), 김윤식 역시 노년문학의 창작자를 65세 이상의 작가가 쓰는 것(노인성 문학(A형))과 65세 이하의 작가들이 노인성을 소재(주제)로 다루는 것(노인성 문학(B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해설), 황금가지, 2004, 250-251쪽).

15) 여기에서 <꿈 꺾서 미안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은 윤대성 작품 세계에서 중년의 위기를 다룬 희곡과 노년희곡 ‘사이에 낀(in-between)’ 작품이다. 이것은 60대의 부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노년희곡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중년의 위기를 다룬 희곡과 매우 유사한 인물 구도 및 갈등구조를 지닌다. 이를 통해 이 극은 중년의 위기를 다룬 희곡에 나타난 부부 갈등이 궁극적으로 화해로 나아감을 드러내고, 윤대성 희곡이 보다 안정적인 구도의 노년희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중년의 위기를 다룬 희곡의 연장선 상에서 다루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노년희곡을 다루는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6) 이들 3작품은 2003년 ‘이혼예찬 3부작’이라는 이름으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올려진 바 있다. ‘중산층 가정극’은 이미원, 앞의 논문.

17) ‘중년의 위기’란 개인이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 삶의 의미와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감 등 정서적 혼란과 방향을 겪는 것이다. 이

제에 대한 나름의 응답은 물론 현실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초·중기 희곡과 달리, 후기 희곡에서는 인생 주기에 따른 실존적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작가 자신의 인생 주기와 맞물린다는 사실은, 윤대성 후기 희곡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에서 촉발된 것임을 알려준다.¹⁸⁾

이때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이란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제시한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을 뜻한다. 그런데 에릭슨에 따르면, 자아정체성은 한번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고 수정되는 ‘진행형의 개념’이다. 즉 영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인간의 발달단계(총 8단계)마다 위기와 갈등이 존재하며,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확고한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신의 생애를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자아 통합감(ego integrity)’으로, 이것의 결여나 상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절망감’을 낳게 된다.¹⁹⁾

로써 인생의 목표와 가치, 자신과 타인의 관계 등 지나온 삶의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재조명을 해보게 된다. 이러한 위기감의 핵심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실존에 대한 의문이 자리잡고 있는바, ‘자아정체성’의 위기가 내재해 있다(김애순, 『중년기 위기감』(2), 『한국심리학회지』, 1993, vol.6, no.1, 76쪽).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중년의 위기는 자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빈 둥지 시기’(대체로 50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애순·윤진, 『중년기 위기감』(1), 『한국노년학』, 1993, vol.13, no.1, 12쪽;정옥분, 『성인노인심리학』(개정판), 학지사, 2013, 374-375쪽).

18) 중년의 위기를 다룬 윤대성 희곡이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은 홍창수, 『연극과 통찰』, 연극과인간, 2010, 189-209쪽 참조. 윤대성 노년 희곡 역시 작가가 노년에 접어들 무렵부터 창작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차이가 있으니, 중년을 다룬 희곡이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긴밀히 관련된 데 반해 노년 희곡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19) 노년기의 갈등상황(위기)은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으로 설명된다. 에릭슨의 이론에 대해서는 E.H.Erikson, 송제훈 역,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김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내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바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먼저 윤대성 희곡이 다양한 노인문제를 통해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형상화한 것을 살펴본다(2.1절). 그런데 그의 희곡은 여성 아닌 남성의 관점에서, 남성노인의 삶과 고민을 드러낸 특징이 있다. 이것은 여성을 피상적으로 묘사한다는 한계와 맞물려 있으나 노인 문제를 남성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의가 있다(2.2절). 3장에서는 윤대성 희곡이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넘어 그 극복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년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희곡이 지닌 멜로드라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4장에서는 이것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윤대성 노년희곡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할 것이다(5장).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윤대성 후기 희곡의 하나인 노년희곡의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윤대성 노년희곡의 구체적 실상은 물론, 작가의 후기 희곡세계를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현대희곡사에서 노년희곡의 한 양상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노년에 당면하는 ‘자아정체성’의 위기

1) 노인문제에 대한 사실적 형상화

윤대성 노년희곡에서 자아정체성의 위기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형상화

해, 『고령화 사회의 ‘노년담론’과 ‘노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옥분, 『성인·노인심리학』(개정판), 학지사, 2013; 박아청, 『아이덴티티론』, 교육과학사, 1988 등을 참조. ‘self-identity’는 학자에 따라 ‘아이덴티티’, ‘자아정체감’, ‘정체성’ 등으로 번역하나 본고에서는 ‘자아정체성’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역할 상실과 빈곤, 질병, 고독 등 이른바 ‘4고(苦)’로 일컬어지는 문제뿐 아니라, 현대 노인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매우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진다.²⁰⁾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은 특히 독거노인의 삶과 죽음, 은퇴 후의 삶, 질병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한 작품이다. 장윤수와 나상일, 서우만, 이영호 등은 모두 70을 넘긴 노인들로 젊은 시절을 함께한 사이다. 이들은 윤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윤수의 시골집에 모인다. 윤수는 왕년에 잘나가던 방송국 PD로, 방송국을 명예퇴직하고 10년 전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해왔다. 그러면서 빈곤과 고독에 시달리다 알콜중독과 영양실조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 상일은 이것을 ‘자살’이라 하거니와, 뒤늦게 발견된 윤수의 일기장은 실제로 윤수가 자신의 죽음을 방임하고 방조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때 잘나갔으나 은퇴한 이후 삶에 위기를 맞는 것은 그러나 윤수만이 아니다. 전직 은행지점장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우만은 출세가 빠른 만큼 퇴직도 빨랐고, 지금은 등산으로 소일하며 시간 죽이기에 골몰한다. 알아주는 방송작가였던 상일 역시 지금은 ‘잊혀진 작가’로 근근이 살아가며, 왕년의 인기 탤런트였던 영호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꿈쩍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기실 ‘역할 상실’은 노인의 4고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노령으로 인한 역할 상실로 인해 빈곤과 질병, 고독이 수반되기 때문이다.²¹⁾ 이에 더해 이 극에는 취장암을 선고받고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상일을 통해 질병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한다.

20) 다만 이때 윤대성 희곡의 주인공들은 대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인바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을 제외하고 빈곤의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윤대성의 노년희곡에 나타난 노인문제는 전성희의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면서 전성희의 논문과 차별적인 지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21) 임춘식, 앞의 책, 72-75쪽.

한편 극의 마지막 장에서 윤수의 장례를 치른 이들은 엉뚱한 상상을 시작한다. 극단을 만들어 상일, 영호, 우만이 각각 작가와 배우를 맡고 순회공연을 다니자는 것이다. ‘연극을 통해 다가올 노인들의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는 즉흥적인 목표도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면 ‘마누라에게서 독립’할 수도 있으며 ‘이제는 다 식어버렸지만 아내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고도 이야기된다. 이에 대해 전성희는 ‘자신의 연륜으로 성숙시킨 창조물을 통해 노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이러한 대화 뒤에 “호기 있게 말을 했지만 실현성 없는 얘기인 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무대지시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기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비가 쏟아지나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다.”²³⁾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한 이들의 말이 한갓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역할 상실, 독거노인, 질병 등 노인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다룸으로써 늙는다는 것의 쓸쓸함과 삶의 허무함을 강하게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는 어떤가. 나옥란, 장혜숙, 성재분은 모두 67세로, 고교시절 3인방으로 불리던 단짝 친구들이다. 이들은 얼마 전 상처한 성재분의 연락으로 콘도에 모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년 삶의 고충에 대한 대화가 이어진다. 먼저 나옥란은 퇴직 후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병수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분은 육체적·정신적인 불만과 고통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노년의 건강상태가 발병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간호하는 가족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혜숙은 남편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후 혼자가 되었다. 다행히 자식들도 출가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22) 전성희, 앞의 논문, 204-206쪽.

23) 윤대성,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연극과인간, 2014, 97-99쪽. 본고에서 분석되는 윤대성의 노년희곡 텍스트는 모두 이 작품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있어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그도 행복하지는 않다. 노년에 들어 딱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외로움에 힘겨워하는 그의 심리는 역할 상실과 고독이 노년의 당면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한편 <동행>은 첫사랑 남녀가 노인이 되어 요양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는 이야기이다. 80세의 남자와 78세의 여자가 그 주인공인데,²⁴⁾ 남자는 신우암 말기이고 여자는 뇌졸중으로 과거 한때의 기억을 잃었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첫사랑임을 알아보고 옛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그리고 비로소 여자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있던’ 삶을 놓고 죽음에 든다. 이러한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이 극은 노년에 당면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외에 남자의 부인이 불치병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포함하면 다양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이 극이 요양시설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동행>의 남자와 여자는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요양시설에 들어오는데, 남자의 경우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의 경우 아들이 있으나 재혼으로 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어 이곳에 오게 된다. 이는, 절대 다수의 노인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나, 부양가족의 부재, 질병 등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매년 늘고 있는 현실²⁵⁾을 반영한다.

그런가 하면 여자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상화했다. 여기서 아들은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에 욕심이 있는데, 어머니가 요양소에서 남자를 만나고 건강을 되찾자 건물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실제로 노년기의 사랑과 재혼에 있어 성인 자녀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24) 텍스트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남자’와 ‘여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의 극중 이름은 ‘분도’와 ‘까타리나’이다.

25) 노년의 주거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는 김수영 외, 앞의 책, 180-199쪽 참조.

중 하나가 재산상속 때문이다.²⁶⁾ <동행>에서는 여자의 아들을 통해 그 부정적인 사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듯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독거노인과 역할상실, 질병, 고독, 죽음, 요양시설, 자녀와의 관계 등 노인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일차적으로 여태까지 그가 창작한 리얼리즘의 맥락 아래 놓여 있다고 하겠다.²⁷⁾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희곡은 특히 남성의 관점에서 ‘남성노인’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계와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도록 한다.

2) 남성 젠더에 대한 주목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노인문제를 드러내면서도 특히 남성노인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윤수의 죽음은 남성 독거노인의 비참한 삶을 잘 드러낸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은 가정불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극에는 윤수의 전처(前妻)인 홍 여사가 등장하여 윤수 가정의 실태를 잘 드러낸다. 홍 여사는 딸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가정에서 자라나 남자다운 사내 윤수에

26) 김미혜, 『노년기 재혼에 대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인식 비교』, 『이화사회복지연구』, 2002, 163-173쪽 참조.

27)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윤대성의 초·중기 희곡은 현대극의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희곡은 어디까지나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극화함으로써 현실을 개선시키려는 리얼리즘적 작가의식 아래 놓여있다. 이는 윤대성이 ‘삶을 구성하고 결정하는 환경적 조건과 요소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드러낸다거나(서연호, “윤대성론:삶의 환경에 대한 통찰”,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 『한국 현역 극작가론』1, 예니, 1994, 70쪽) 각각의 시대적 사실들로부터 시대의 의미를 충실히 읽으려 노력했다는 지적(김옥란, “우리 사회와의 직접적인 대화:윤대성”, 『우리 시대의 극작가』, 객석 아카이브, 2010, 55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 반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윤수는 아버지와 똑같은 마초였다. 윤수는 홍 여사의 직장 생활을 반대하는 한편 외도를 일삼고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만 위하면서 며느리를 식모 취급했고, 결국 홍 여사는 “결혼이란 게 여성이 남성과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노예 계약”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²⁸⁾

이것은 기실 중년의 위기를 다룬 윤대성 희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부부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주원인으로 가부장제가 설정되고,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로써 가부장제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관객의 연민이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사실이다. 가정사에서 드러나는 윤수의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윤수는 방송가에서 뒤통을 받는 등의 치사한 짓을 하지 않는 “순수한 부류”에 속한다. 방송국에서 윤수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사실 윤수를 따르는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며 그는 “강직한 성격”에 “정의감이 많은” 인물이다. 심각한 관계까지 간 여자 탈렌트 역시 윤수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유혹했고, ‘여자가 먼저 같이 살자고 덤빈 것’으로 설명된다.²⁹⁾

그런데 여기서 이렇듯 윤수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윤수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시 가부장제 가치관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가 본래 ‘도덕적 우위’를 가졌음에도 가부장제가 남자에게 허여하는 ‘(왜곡된) 자유’를 수행하다 인생에 실패했다는 관점이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여사가 배신감에 몸서리치다 상일과 하룻밤을 보냈으며, 이는 윤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으로 홍 여사가 상일을 유혹한 것이라 설정함으로써³⁰⁾ 홍 여사의 도덕성에 상처를 가한다. 더욱이 홍 여사는 극중에서 성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관객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반면, 윤수는

28)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75쪽.

29)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75-86쪽 참조.

30)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79-80쪽.

직접 등장하지 않음에도 그의 신변이 친구들에 의해 자세히 알려지고 일기장까지 발견됨으로써 관객의 연민이 집중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것은 이 극이 어디까지나 남성의 문제에 집중하고 여성에 소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이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가 우만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은퇴 후 남성이 겪는 역할상실의 충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그가 부지런히 등산을 다니는 것은 마누라의 눈치를 피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우만:내 마누라는 나를 증오하는 거 같아. 집에서 빈둥거리며 낮잠을 자는 나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눈에 그게 보여.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 한방에 같이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저만치 딴 방에 떨어져 있어도 내 목을 조를 수 있는 여자야……

상일:야 너 엄살이 심하다.

우만:내가 등산을 가고 싶어 가는 줄 아니? 그 여자 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배낭을 메고 나서는 길뿐이야…… 요즘은 마누라가 가게에 간다고 먼저 나가 버리는 일이 생겨 그나마 다행이지만 마누라가 집에 올 때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돼. 시장에서 옷 팔면서 스트레스 받은 걸 다 나한테 퍼붓는다. 무슨 꼬다리를 잡던 나를 잡아. 그래서 산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까지 다 먹고 한잔 걸치고 들어간다. 저녁 안 먹고 들어가면 저녁도 못 챙겨 먹느냐고 핀잔이지…… 마누라가 해준 밥 먹어 본지도 오래다.

상일:우리 나이에 누가 밥을 해주냐? 제가 알아서 때우는 거지……

우만:너도 그러냐? 31)

위의 인용은 다소 코믹한 과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은퇴한 남성들의 위축된 심리를 잘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역할상실에 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며,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해왔기에 은퇴는 단순한 역할상실을 넘어 존재 의미의

31)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63-64쪽.

상실을 유발한다.³²⁾ 위의 인용에서 우만이 추정하는 부인의 심리-남편에 대한 증오와 미움-는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압박으로도 표현되거나, 이것은 남성이 느끼는 여성의 심리로, 실제 여성의 심리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심리와 삶을 다룬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극은 노년에 이른 여고동창 3명이 콘도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지나간 세월을 반추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나 성문제 등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에까지 대화가 이어지고, 인물들 간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는 당연히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남편에 대해 하는 말이나 재분의 연애 사건 등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혜숙은 가정과 일에 충실했던 남편을 ‘돈 쓸 줄도 바람을 피울 줄도 모르는 쪼다’라며 비하한다. 직장파 일만 알지 인생을 엔조이할 줄 몰랐다는 것이다.³³⁾ 그런가 하면 재분의 남편이 죽은 것은 재분이 연하의 남자와 바람이 난 일로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인데, 그것을 밝히는 대목은 너무도 담담하다.

재분:우리 아저씨 왜 죽었는지 알아?

옥란:왜? 어디 아팠었니?

재분:아플 줄도 모르는 남자야…… 평생을 눈가에 힘주고 위엄 떨고 살면서…… 늘 저만 옳지! ……자존심 상한다고 욕하는 성질 못 이겨 농약 마시고 자살했어.

옥란:아무리…… 성질이 난다고 어떻게……

혜숙:무슨 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재분:나 때문이지 뭐?

옥란:싸웠구나. 네가 성질 굵어봤지 뭐.

재분:(커피 마시고 나서) 내가 바람을 피웠거든?

32) 정옥분, 앞의 책, 476-477쪽.

33)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116-117쪽.

두사람: 뭐? 네가 바람을? 이 나이에?

재분: 왜 안 돼? 난 못 할 거 같애?

(중간생략)

재분: 나 사랑에 빠진 거 같해! 34)

남편이 자신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위의 인용에는 재분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며’ 남들이 욕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³⁵⁾ 그것은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지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는 아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과수원을 처분하고 한식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살자고 하는 제안³⁶⁾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온 노년의 사랑과 성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성중심적인 성규범 문화에서 노년의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³⁷⁾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여성상은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과 거리가 났으므로써 피상적인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³⁸⁾

노년문학은 물론이고, 노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노년학에서 젠더의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젠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노년 여성에 대

34)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111-112쪽.

35)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124쪽.

36)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137쪽.

37) 전성희, 앞의 논문, 203-204쪽.

38) 이미원은 중년의 위기를 다룬 윤대성의 희곡을 논하면서, 이들 희곡에 나타난 여성이 남성보다 변화된 현실에의 적응력이 뛰어난데, 그 정도가 인간적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묘사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성을 여전히 남성의 시각에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유희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남자 인물이 남성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앞의 논문, 399쪽). 이러한 비판은 윤대성의 노년희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그 결과의 하나이다.³⁹⁾ 그런데 최근 들어 남성 노인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들은 일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확립했으며, 일 중심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IMF 이후 불안정한 고용과 성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은퇴를 기점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⁴⁰⁾ 실제로 여성 노인은 노년기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정 내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 노인은 가정 및 사회적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이나 의사소통, 새로운 동년배관계 형성 등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다.⁴¹⁾

이런 점에서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노년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노인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과 고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위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여성을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한계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⁴²⁾ 그러나 남성 노인 또한 여성 노인과 또 다른 의미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39) 김영혜,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vol. 27, no.1, 2004, 2쪽 참조.

40) 최인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젠더 리뷰』, 2014 가을호, 86쪽.

41) 남석인,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8 no.4, 2008, 1298 및 1310-1311쪽; 서병숙, 『노인 연구』, 교문사, 1991, 29쪽 참조.

42) 그러나 한편으로 윤대성의 희곡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옹호하는 시각도 있다. 기실 젠더의 문제는 중년을 다룬 윤대성 희곡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에서 김정순은 ‘남성적 관점과 여성적 관점을 공히 포함하는 일종의 양성적 시각’이라 말한 바 있다(박숙자, 앞의 논문 역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것은 그의 희곡이 남성 젠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적어도 가부장적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대성 희곡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윤대성 희곡을 ‘젠더’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대성 노년희곡은 의미 있는 관점이며 시도라고 하겠다.

3. 노년 삶에 대한 긍정적 비전

1장에서 언급했듯 노년문학 및 노년문학 연구는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성취해야 할 일종의 과업’⁴³⁾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때 노년문학이 단순히 노인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노년기의 성숙과 존재의 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⁴⁴⁾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노년과 더불어 찾아오는 심신의 변화, 예컨대 육신의 질병과 심리적 소외감을 정직하게 견디면서 그것을 강고하게 단련된 정신세계로 승화시키는 참된 의미의” 노년문학을 희구하는 것⁴⁵⁾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대성 희곡은 노인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년을 살아가는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에서 다루는 것은 노년에 있어 사랑의 중요성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분과 한식의 연애로, 이들은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어 ‘낭만적 사랑’을 수행한다. 그런가 하면 혜숙 역시 우연히 나간 봉사활동에서 말기 암에 걸린 전직 교수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이것에 대한 긍정을 통해 노년에도 얼마든지 사랑에 빠질 수 있으며 이것이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됨을 드러내고 있다.

43) 이것은 정진웅의 책에서 가져온 표현이다(앞의 책, 193쪽). 그는 노인의 삶을 비하하는 지배적 노년 담론에 맞서 대안적 노년 담론을 이루는 것을 성취해야 할 일종의 과업이라 지칭한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노년소설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것을 ‘우리 앞에 던져진 화두’로 보는 김윤식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앞의 글, 276쪽).

44) 서정자,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편,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인식』, 백남문화사, 1996, 242-245쪽.

45) 염무웅, “노년의 문학”, 『살아있는 과거』, 창비, 2015.

그러나 이 극에서 낭만적 사랑을 노년기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극의 마지막에서 옥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옥란: 사랑하면 왜 꼭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남을 항상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어요. 그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런게 사랑 아니에요? 내 남편은 몇 년째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저 내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나도 아무리 남편이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줘요. 두 사람 이제 나이가 지나 누군가 앓아누웠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걱정해 주는 것, 보살펴 주는 것! 그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⁴⁶⁾

위의 인용에서 옥란은 남편이 몇 년째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저 서로 옆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랑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앓아누웠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걱정해 주며 보살펴 주는 것’(인용 밑줄 참조)이라며, 사랑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내놓는다. 이것은 노년에 있어 ‘친밀감’과 ‘헌신(돌봄)’이 중요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⁷⁾

더 나아가 이러한 ‘친밀감’과 ‘헌신’은 앞에서 ‘낭만적 사랑’으로 설명된 재분과 한식에게도 적용된다. 극의 5장에서 재분과 한식은 앞으로 관

46)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138쪽.

47) Sternberg에 따르면 사랑은 ‘passion’, ‘intimacy’, ‘commitment’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각각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 번역했다. Sternberg의 사랑이론에 대해서는 최혜경 외,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애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4호, 1999, 49쪽 참조. 한편 김윤정·서선영은 ‘열정’이 중심이 된 사랑을 ‘낭만적 사랑’, ‘친밀감’과 ‘헌신’이 주가 되는 것은 ‘동반자적 사랑’이라 칭하고, 노년기의 사랑이 ‘낭만적 사랑’보다는 ‘친밀감’과 ‘헌신’이 주가 되는 ‘동반자적 사랑’임을 보고하고 있다(『중. 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vol.25, no.1, 2005, 92-95쪽).

계를 계속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는데, 70을 앞둔 나이, 남편에 대한 부채감,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 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세상이 뭐라 하든, 무슨 비난을 퍼붓든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기로’ 마음먹는다. “젊을 때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따듯한 사랑”⁴⁸⁾이라는 재분의 대사는, 앞으로 진행될 그들의 사랑이 ‘열정’의 요소보다 ‘친밀감’과 ‘헌신’에 기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행>은 어떠한가. 이것은 먼저, 기억을 잃은 여자의 모습을 통해 삶에 있어 기억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자는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발작을 일으키고, 간호사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지 묻는다. 이에 의사는 ‘인간 각자가 지닌 역사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것은 인생 일반에 있어서 기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거니와 특히 노년에 있어 기억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 인간은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자아정체성의 과업을 지니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당면하는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확고한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여태까지 자신의 생애를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통합감’을 위해서는 여태까지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기억’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한 생애의 회상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기본 전제가 된다.

한편 남자의 노력으로 여자는 과거에 잃었던 기억-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도와의 첫사랑의 기억-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여자가 기억을 되찾은 순간, 분도는 여태까지 기적적으로 버텨온 삶을 마감하며, 그런 점에서 이 극의 결말은 비극적이다. 그러나 이 극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해 내는 것은 의사의 다음과 같은 말 때문

48)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143쪽.

이다.

의사:생의 마지막 순간 세상의 끝에 서서 돌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삶
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기만 하고 구차한 우리의
삶 속에도 기억할 만한 추억 거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 힘들었던 과거
의 아픈 상처만 서로 들추지 말고 아름다웠던 그 한 순간들을 찾아보세
요, 그리고 그 추억의 힘으로 살아보세요. 훨씬 인생은 아름다울 겁니다.
나는 오늘 한 노인의 죽음을 대하면서 하나의 작은 기적을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노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일
을 완성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과 하직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런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
느냐에 따라서…….49)

의사는 여기서 직접 관객을 향해 “어렵기만 하고 구차한 우리의 삶 속
에도 기억할 만한 추억거리”가 있으며, “과거의 아픈 상처만 서로 들추
지 말고 아름다웠던 그 한 순간들을 찾아” “추억의 힘으로 살아”보라는
말을 전한다(인용 밑줄 참조). 그런데 바로 이것은 노년이 자신의 삶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한 첩경이다. 아름다운 추억은 간
직하고 그렇지 않은 기억은 정당화하거나 체념을 통해 봉합할 때 ‘자아
통합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행>에 제시된 기억과 추
억은 ‘자아통합감’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윤대성의 회곡이 노년의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임을 분명히 한다고 하겠다.

이렇듯 윤대성의 노년회곡은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을 넘
어 사랑과 기억, 추억 등 노년을 위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노년기 규범이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노년담론을
극복하는 대안적 노년담론⁵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이러한 긍

49) <동행>, 183쪽.

50) 정진웅, 앞의 책, 192-193쪽 참조.

정적 비전은 그의 희곡이 지닌 멜로드라마적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4. 멜로드라마 양식을 통한 노년에 대한 위로와 긍정

앞에서도 언급했듯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노년의 현실을 일정 부분 사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여태까지 그가 창작한 리얼리즘의 맥락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희곡은 내러티브 구성이나 연극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분히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이때 ‘멜로드라마’는 문학 및 문화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임에도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개념이 존재함으로써 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멜로드라마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참조하여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몇 가지로 추출하고, 여기에 기반하여 윤대성 희곡의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⁵¹⁾

첫째, 윤대성 희곡에는 남녀 간의 통속적인 사랑이 많이 다루어진 다.⁵²⁾ 이것은 멜로드라마의 핵심적 특성인 ‘감정의 과잉’과 직결되는 것

51) 멜로드라마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벤 싱어 역시 멜로드라마가 ‘무척이나 변화무쌍하며 철저히 부정형적인 장르’라고 하면서, 멜로드라마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이것의 다양한 조합으로 멜로드라마가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Ben Singer,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73-82쪽). 본 연구는 벤 싱어의 이러한 견해를 기본으로 하되,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서들을 참조했다: Peter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Eric Bentley, *The Life of the Drama*, Atheneum, 1964; 김훈순·김은정, 「한국 멜로영화의 장르 연구」, 『한국방송학보』, vol.14 no.1, 2000; 이수현, 「김승옥 각색 작업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2007.8; 박유희 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멜로드라마』, 이론과 실천, 2007; 윤석진, 「1960년대 멜로드라마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으로,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와 <동행>에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전자에는 노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남녀(재분과 한식)가 등장한다. 여기서 한식은 60의 나이에든 불구하고 근육질에 오토바이를 타고 순정적이며 완벽한 섹스를 구사하는 ‘이상적 남자’로 묘사된다. <동행>의 남녀 역시 노년에 다시 만나 애절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론, 젊은 시절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나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갈등하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통속적인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에 더해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의 아들이 첫사랑의 자식이라는 ‘출생의 비밀’이 나중에 가서야 밝혀지기도 한다.

둘째, 윤대성 희곡에는 음악과 시가 빈번히 사용된다. 멜로드라마의 어원이 ‘노래가 있는 드라마’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음악은 멜로드라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윤대성 노년희곡의 경우 음악과 시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먼저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에는 나이 들고 외로운 신세를 노래한 대중가요가 나오며,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이라는 시가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나타난다. 이것이 이 작품의 비극적 정조를 더한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에 나타난 시와 음악은 노년의 로맨스를 강조한다. 이것은 특히 한식이 직접 시를 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동행> 또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사라사테의 지고이넬바이젠, 라틴어 미사곡은 물론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셋째, 윤대성의 희곡에는 우연과 기적적인 사건 등 ‘비고전적인 내러티브’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주지하듯 멜로드라마에는 논리적인 인과구조가 아닌, 우연의 일치, 믿기 어려운 일, 뒤엀킨 플롯 구성, 위태로운 상황의 기적적인 해결 등이 존재한다.⁵²⁾ 대표적으로, 노인요양소에서 오래

52) 박유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멜로드라마는 ‘장애가 많은 연애 이야기’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서사 장르 개념이다(박유희 외, 앞의 책, 13쪽).

53) ‘비고전적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은 Ben Singer, 앞의 책, 77-80쪽.

전에 헤어진 첫사랑을 만난다는 설정은 불가능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드문, 우연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기억을 잃었던 여인이 남자의 헌신으로 기억을 회복하며, 신우암의 악화로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야 할 남자가, 여인이 기억을 되찾은 후 비로소 죽음에 든다는 사실도 비논리적이다(이상 <동행>).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에서 혜숙의 파트너가 혜숙과의 사랑으로 말기 암에서 점차 회복된다는 설정도 ‘기적적’이다.

넷째, 연민의 감정을 유도하는 강렬한 파토스이다. 멜로드라마는 관객의 마음속으로부터 ‘감정의 과잉’을 이끌어낸다고 설명되는데, 이때 유발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파토스이다. 이것은 희생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부당함으로 인해 촉발되며, 동시에 그러한 불행이 나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는 ‘자기연민’의 요소를 수반한다.⁵⁴⁾ 이것은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우만, 영호, 상일의 독백과 윤수의 일기장, 장례식을 치른 후 등장인물들이 흘리는 눈물 등을 통해 고조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에게만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객이 여기에 공감할 가능성 또한 높다.

다섯째, 도덕적인 결말구조이다. 멜로드라마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며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⁵⁵⁾ 윤대성 극의 경우 선악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흑백논리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에 인물의 갈등이 해결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남으로써 관객들에게 편안함과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에서 재분과 한식의 사랑이 현실적인 문제로 결렬될 위기에서 극적인 결합으로 마무리된다는지, <동행>에서 아름다운 추억에 관한 극의 메시지가 직접 발화됨으로써 이 극의 의미를 긍정적인 것으로

54) Ben Singer, 앞의 책, 74-75쪽.

55) 이것은 서구 멜로드라마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멜로드라마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관적으로 끝날 뿐 비관적이거나 판단 유보적인 결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진, 앞의 논문, 12-14쪽.

로 봉합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써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멜로드라마 양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⁶⁾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윤대성 희곡이 전통극의 현대화, 부조리극, 서사극, 사이코드라마 등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연극의 형식적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⁵⁷⁾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대성은 왜 기존의 이러한 평가에 역행하여 왕왕 ‘하위 장르’로 격하되는 멜로드라마 양식을 취한 것일까.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대성의 후기 희곡이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멜로드라마는 놀랍고 선정적인 상황, 감정의 과잉, 우연의 남발 등으로 리얼리즘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면 멜로드라마는 그 이면에 일종의 심원한 리얼리즘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즉 멜로드라마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모습인 ‘우연’을 포착하고,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근본적인 의미에서 ‘삶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것이다.⁵⁸⁾ 이렇게 볼 때 윤대성의 노년희곡이 멜로드라마 양식을 취한 것은 노년에 내재된 근본적인 진실을 포착하고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

56) 물론 윤대성의 노년희곡에는 서사적 화자가 등장하거나(<동행>) 시공간이 자유롭게 변화하기도 한다(<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으로, 윤대성 희곡이 하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형식을 구사하는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57) 유민영은 윤대성이 극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극술의 구사에 있다고 하며, 재래의 무대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앞의 글, 362쪽). 윤대성 희곡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8) Ben Singer, 앞의 책, 82-87쪽. 이때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에릭 벤틀리가 *The Life of the Drama*에서 한 말이다. 벤틀리는 멜로드라마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멜로드라마와 자연주의를 대립시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멜로드라마가 실제로 자연주의보다 더 자연스러우며 현실, 특히 근대적 현실에 있어 자연주의보다 훨씬 더 가깝게 부합한다.”(같은 책, 같은 곳).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멜로드라마가 도덕주의와 ‘시적 정의(poetic justice)’의 구현을 통해 관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피난처의 구실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⁵⁹⁾ 이것은 피터 브룩스가 19세기를 풍미한 멜로드라마에 대해 설명하면서, 근대의 출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멜로드라마적 세계를 통해 위로받으려 했다는 지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윤대성의 희곡은 멜로드라마적 세계의 구현을 통해 노년에 당면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여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려는 희망적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⁶¹⁾

이렇게 볼 때 윤대성의 노년희곡이 멜로드라마 양식을 취한 것은 소정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루는 소재에 따라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윤대성 희곡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⁶²⁾ 또한 멜로드라마 양식을 통해 대중적인 노년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⁶³⁾

59) Ben Singe, 앞의 책, 201-206쪽.

60) Peter Brooks, 앞의 책, pp.14-21 참조.

61) 이것은 기존에 윤대성 희곡이 허무의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는 사실(홍창수, 앞의 논문)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로써 노년희곡에 이르러 윤대성 희곡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앞으로의 희곡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62) 김옥란에 따르면 윤대성은 특정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대의 문제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한 작가이다(앞의 글, 55쪽).

63) <꿈 꺾서 미안해>를 포함하여 본고에서 다룬 윤대성의 노년희곡 3편은 임영웅 연출로 올려져 ‘실버연극’으로 주목받았으며, 그로 인해 산울림소극장은 ‘노년연극의 메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이은경, “나의 황홀한 실종기: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객석』, 2013.5). 또한 <동행>은 극단 시민극장(장남수 연출)에 의해 청주와 서울에서 공연되었고 2015년 8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서 성황리에 공연된 바 있다. 이로써 윤대성 희곡이 대중적인 노년연극의 장르를 완전히 구축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본다.

5. 윤대성 노년희곡의 의의와 한계

이상 본고는 윤대성 후기 희곡의 한 갈래인 노년희곡에 대해 고찰했다. 윤대성의 후기 희곡은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실존적 문제로 관심이 이동한 시기로, 특히 중년과 노년기라는 인생 주기에 따른 실존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 <동행> 등의 노년희곡은, 노년에 당면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내고 이것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바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자아정체성’은 중년의 위기를 다룬 희곡으로부터 이어진 윤대성 후기 희곡의 키워드이다.

먼저 윤대성 노년희곡에 나타난 자아정체성의 위기는 역할상실, 질병, 고독, 빈곤 등 노인의 ‘4고(苦)’는 물론, 독거노인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요양시설 등 다양한 노인문제로 드러난다.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비전으로 사랑, 기억과 추억이 제시된다. 이때 사랑의 경우 노년에도 얼마든지 ‘낭만적 사랑’이 가능함을 제시하면서도, ‘친밀감’과 ‘헌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함을 드러내어 노년의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기억과 추억은 노년의 발달과업인 ‘자아 통합감’ 형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윤대성의 노년희곡이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남성 젠더에 관심을 갖고 남성노인의 문제에 주목한 특징이 있다. 즉 가부장제 아래 ‘일’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온 남성들이 은퇴를 기점으로 위기에 직면하는 현실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실 기존의 노년문학 및 노년학은 젠더 문제에 무심하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윤대성의 희곡은 여성노인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소외되어 있는 남성에게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그의 희곡은 남녀 간의 통속적인 사랑, 음악과 시의 활용, 비고전적 내러티브, 파토스, 도덕적인 결말 구조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짐으로써 멜로드라마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

는 윤대성의 노년희곡이 멜로드라마적 세계의 구현을 통해 노년 삶에 내재한 근본적 진실을 드러내고 위안을 제공하려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든지 부적절한 제목이 설정되고 음악이 부조화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⁶⁴⁾ 이것은 ‘감정의 과잉’과 ‘우연’을 핵심요소로 하는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극작술의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윤대성의 노년희곡은 노인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노년의 긍정적인 비전을 드러냄으로써 대안적인 노년 담론을 형성한다. 또한 ‘자아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는 물론, 작가의 인생주기에 따른 희곡이라는 점에서 노년희곡 창작에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 아울러 멜로드라마 양식을 통해 대중적인 노년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64) 본론에서 지적했듯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의 인물은 부분적으로 관객의 공감을 사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사랑할 수 있다면>의 홍 여사 역시 성격화가 불충분하며 이것의 제목은 작품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다. 또한 <동행>에 사용된 음악들은 미사곡부터 클래식, 대중가요가 망라되어 조화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다만 <동행>에 대한 판단은 밀양연극제에서 올려진 공연에 대한 필자의 관극 경험에 따른 것으로, 주관적일 가능성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윤대성, 『신화 1900』, 예니, 1983.
- _____, “나의 작품을 위한 몇 가지 변명”, 『한국연극』, 1993. 4-5월호.
- _____, 『윤대성 희곡 전집』 1~4, 평민사, 2004.
- _____, 『한 번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연극과인간, 2014.

2. 국내 논저

- 김동현, 『윤대성 희곡의 실존 의식과 현실 비판 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성희, “현실과 연극의 겹침구조”, 『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 문예마당, 1995.
- 김수영 외,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 김미혜, 『노년기 재혼에 대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인식 비교』, 『이화사회복지연구』, 2002.
- 김애순, 윤진, 『중년기 위기감』(1), 『한국노년학』, vol.13, no.1, 1993.
- 김애순, 『중년기 위기감』(2),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993, vol.6, no.1.
- 김영혜,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2004.
- 김옥란 글·김주연 대담, 『우리 시대의 극작가』, 객석아카이브, 2010.
-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 김윤정·서선영,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vol.25, no. 1, 2005.
- 김지혜, 『고령화 사회의 ‘노년담론’과 ‘노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진희, 『윤대성 초기희곡의 서사극적 특성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남석인, 「남성 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8 no.4, 200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멜로드라마』, 소명출판, 2007.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12.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편,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밀양연극촌(편), 「윤대성 극문학관」, 윤대성 극문학관 개관자료집, 2015.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vol.24, no.3, 2004.

박아청, 『아이덴티티론』, 교육과학사, 1988.

박혜령, 「윤대성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997.

서병숙, 『노인연구』, 교문사, 1991.

서연호, 「윤대성론:삶의 환경에 대한 통찰」,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 『한국 현역극작가론』1, 예니, 1994.

심정순, “한국형의 포괄적 양성적 관점을 향하여”, 윤대성, 『윤대성 희곡 전집』4, 연극과인간, 2004.

염무웅, “노년의 문학”, 『살아있는 과거』, 창비, 2015.

유민영, “좌절과 비극의 작가”, 윤대성, 『신화 1900』, 예니, 1983.

윤석진, 「1960년대 멜로드라마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미원, “윤대성 희곡 연구:‘중산층 가정극’을 중심으로”, 윤대성, 『윤대성 희곡전집』1, 연극과 인간, 2004.

이수현, 「김승옥 각색 작업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2007.8

이은경, “나의 황홀한 실종기: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객석』, 2013.5.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풍출판사, 1992.

- 전성희, 「노년 작가가 인식한 노년의 문제」, 인문언어, 제154권 3호, 2013.
- 정낙현, 「윤대성 희곡에 나타난 서사극적 특성」, 『한국극예술연구』, 1992.
- 정옥분, 『성인·노인심리학』(개정판), 학지사, 2013.
-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 조보라미, “극작가 윤대성과의 만남:연극은 꿈이며 영원한 것”, 공연과 이론을위한모임, 『공연과 이론』, 2014.3.
- 최명숙, 『21세기에 만난 한국 노년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 최인희,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젠더 리뷰』, 2014 가을.
- 최혜경 외,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에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4호, 1999.
- 홍창수, 「윤대성 희곡과 허무의식」, 『어문논집』, 2009.10.
- , 『연극과 통찰』, 연극과인간, 2010.

3. 국외 논저

- Bentley, Eric, *The Life of the Drama*, Atheneum, 1964.
- Brooks, Peter,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Erikson, E.H., 송제훈 역,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
- Singer, Ben,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 Smith, J.L., *Melodrama*, Methuen & Co Ltd., 1973.

<Abstract>

A Study on the Old Age Plays of Daesung Yoon

Zoh, Borami

This paper studies the old age plays of Daesung Yoon, *If I love again*, *Awakening from a beautiful dream*, *Going together*. Old men and women in these plays experience the crisis of self-identity and seek for the solution to overcome it, so these plays can be interpreted as the journey looking for the self-identity in old age. Self-identity is the keyword of late plays of Mr. Yoon which covers from his plays about the crisis in the middle age. The crisis of self-identity is expressed by various problems of the aged, including loss of role, poverty, illness and loneliness. Love, memory ability and beautiful memories of life are revealed as a positive vision for the life of the old. Therein romantic love is whatsoever possible, but intimacy and commitment are necessary for the love of old age. Memory ability and beautiful memories of life contribute to the ego-integrity, too. Especially, Mr. Yoon's plays focus on the problems of old 'male' men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the old age literature as well as gerontology and take the melodramatic mod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ain stream of Mr. Yoon's past plays. In conclusion, old age plays of Mr. Yoon propose an alternative discourse of the old age through the positive vision; They also present a model for the writings of the old age plays such as the journey looking for the

self-identity; Lastly they give a possibility of popular old age drama through the melodramatic mode.

Key Words : Old Age Play, Self-identity, Ego integrity, Problem of the Aged, Gender, Melodrama

■ 논문접수 : 2016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6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1일

